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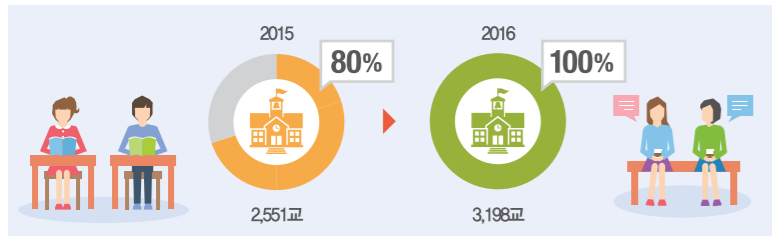


## 자유학기제 확산

### “자유학기제를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.”

####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.

-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·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,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- 올해는 전체 중학교의 80%가 참여하고, '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.  
※ ('13) 42교 → ('14) 811교 → ('15) 2,551교 → ('16) 전면 시행



#### 자유학기제를 통해 수업을 혁신하고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.

- 토론, 실험·실습 등 학생 참여중심 수업을 확산하고, 진로탐색, 주제선택, 예술·체육,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꿈·끼 탐색 활동을 활성화합니다.
- 총괄식 지필평가 대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형성평가,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 평가가 실시됩니다.

####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내실 있는 체험활동 인프라를 구축합니다.

- 공공·민간기관·대학 등과 협력하여 진로체험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 
※ '15년 53,882개 기관, 102,574개 프로그램 확보(7.16 기준)
- 원격영상 진로멘토링, 진로체험 버스 방방곡곡 등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체험활동을 지원합니다.

## 공교육 정상화 추진

### “학교교육만으로 평가·입시 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”

#### 사교육을 유발하는 선행출제를 금지합니다.

- 「공교육정상화법」을 통해 각종 시험의 선행출제를 철저히 점검하고, 고입·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.
- 「공교육정상화법」을 개정하여 사교육 유발 우려가 있는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을 완화합니다.

#### 「2015 개정 교육과정」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.

- 문·이과 구분 없이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공통과목을 개설하고, 진로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운영합니다.
- 교과별 핵심개념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,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합니다.
-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·고시('15.9월)하고, '18년부터(초 1~2는 '17년) 연차적으로 적용합니다.



####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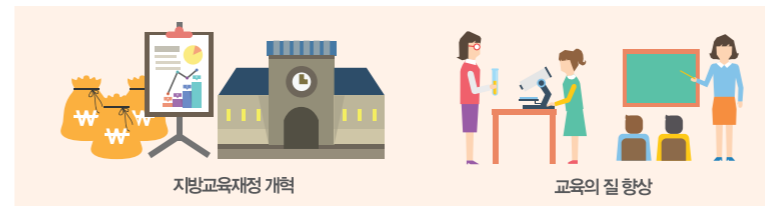
- 수능 출제인력 다양화, 문항검토 강화 등 수능 출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.
- 과잉학습 및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수능영어 절대평가를 '18학년도부터 도입합니다.

## 지방교육재정 개혁

### “이제 교육 살림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.”

#### 지방교육재정을 개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.

-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.



#### 자원배분 체계를 재정립합니다.

- 누리과정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.
- 지역별 학생규모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금 교부기준을 개선하여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.

####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.

-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.
-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교원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교육여건을 확충합니다.

####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·책무성을 강화합니다.

-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
- 재정정보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, 시·도간 비교공시를 실시합니다.

##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

### “사회수요 중심의 대학 체질개선으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겠습니다.”

####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합니다.

- 학령인구 급감\*에 따른 지방대 미충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호합니다.  
\* '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대비 약 16만명의 학생 부족 예상
- 부실대학에는 구조개혁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, 하위권 대학 중 구조개혁 의지가 있는 대학은 컨설팅을 통해 질적 변화\*를 유도합니다.  
\* 학사구조 개편, 기능 전환 등 맞춤형 발전방향 제시



#### 고등교육 신수요를 창출합니다.

-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대학의 새로운 자원으로 흡수하고자 합니다.

#### 양적·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.

-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인력의 양적·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.
- 여러 학문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의 육성·진흥을 통해 미래 창조경제의 기초를 강화합니다.

#### 사회맞춤형 학과를 확산합니다.

-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등에서 채용분야 및 인원을 제시하면, 대학이 기업수요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거나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합니다.

